

광주도시철도公 유도, 창단 첫 단체전 정상

실업유도최강전, 고창군청에 역전승
이혜경·이주연·최은현, 3체급 석권
팀 창단 이후 역대 최고 성적 금자탑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선수단(감독 최원)이 팀 창단 7년 만에 단체전 전국 정상에 우뚝 섰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단은 6일 경기도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하계 전국실업유도최강전 단체전 결승에서 고창군청을 상대로 0대2로 뒤지다가 3대2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감격의 첫 우승을 일궈냈다. 5명의 선수가 승부를 벌이는 단체전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예선 16강전부터 만연시 김성연을 선봉으로 초반전에 승부수를 던지며 동해시청, 안산시청, 포항시청을 연거푸 3대0으로 제압하며 결승전에 안착했다. 최원 감독은 결승전에서는 선수들 체력 안배차원에서 후반부에 승부수를 띄웠고, 이같은 전술은 주효했다. 이주연, 김성연, 이정윤이 잇단 승전고를 울리며 패색이 짙던 승부를 단숨에 뒤집으며 창단 첫 우승이라는 눈부신 결실을 수확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4-5일 열린 개인전에서도 -48kg급 이혜경, -63kg급 이주연, -78kg급 최은현이 금메달을 목에 걸며 팀 창단 이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선수단은 2013년 3명의 선수로 창단해 지난해까지 각종 국내·외 대회 개인전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으나 선수단 인원 부족으로 단체전에는 출전조차 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올해 광주시와 도시철도공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정윤, 이주연, 최은현을 영입하며 완벽한 팀 구성을 마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단체전에 출전



6일 경기도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하계 전국실업유도최강전에서 창단 첫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 유도선수단이 최원 감독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 유도선수단 제공

할 수 있게 됐고 지난 3월 순천만국가정원컵에서 단체 3위, 5월 청풍기전국유도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갔다. 최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단 감독은 “광주시와 도시철도공사의 재정적인 지원과 체육회의 전문적

인 운영, 광주시유도회의 관심 속에 이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유도 실업팀 중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이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쳐준 선수들이 영광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오승환, 6년 만에 삼성 컴백

‘연봉 6억원’ 삼성과 계약
출전 징계...등판은 내년에

6년 동안의 국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오승환(37)이 KBO리그 원소속구단 삼성 라이온즈와 2019년 연봉 6억원에 계약했다. 프로야구 삼성은 6일 “오승환과 계약을 마쳤다. 2019년 잔여 시즌 연봉은 6억원이지만 출전 정지로 인해 실수령액은 50%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오승환과 삼성은 올 시즌이 끝난 뒤, 2020년 연봉 계약을 한다. 2019년 계약을 마쳤지만, 올해 오승환은 마운드에 설 수 없다. KBO는 2016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오승환이 KBO리그 복귀 시 해당 시즌 총경기 수의 50% 출장 징지 처분을 한다”고 발표했다.

오승환은 72경기를 뛸 수 없다. 삼성은 5월까지 102경기를 치렀다. 오승환은 올 시즌 잔여 42경기에서 출장 징지 징계를 소화하고, 2020년에 남은 30경기 징계를 채운 뒤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다. 삼성 구단은 “실제 마운드에서 팬들과 만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4월 말 혹은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2019년 연봉 6억원에 계약한 오승환이 실제 수령액은 절반 정도로 예상되는 것도 ‘징계’ 때문이다. 출장 징지 징계를 소화하는 동안에는 연봉을 받을 수 없다. 오승환은 삼성이 정규시즌을 종료하는 시점부터 11월 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오승환은 2019년 삼성과 계약한 8-11월, 4개월 중 두달 정도 연봉을 받는다는 의미다.

오승환은 당분간 재활에 전념한다. 오승환은 곧 오른 팔꿈치 뿔조각 제거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 구단은 오승환이 삼성 시절에 달았던 등 번호 21을 내주기로 했다. 오승환은 10일 KIA 타이거즈와의 홈 경기가 열리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찾아 동료와 팬들에게 인사한다. /연합뉴스

최복음 4관왕 ‘부활投’...광양시청 볼링 종합우승

전국실업볼링 金4·銀1
전통 명가 재건 신호탄

2010년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세 부 5개 종목을 모조리 휩쓸었던 ‘전통의 강호’ 광양시청 볼링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승기를 휘날리며 ‘명가 재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광양시청 볼링팀은 6일 천안종합운동장 볼링경기장에서 막을 내린 2019 천안 한국실업볼링연맹 전국실업볼링대회에서 ‘에이스’ 최복음을 앞세워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포함한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특히 ‘한국 볼링 국가대표 간판스타’ 최복음(32)의 부활은 그 의미가 크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4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등극했던 최복음은 2016년 왼쪽 손목 수술 후유증으로 그동안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슬럼프에 빠졌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 2인조전, 5인조전, 개인종합 금메달을 차지하



6일 천안종합운동장 볼링장에서 열린 2019 천안 한국실업볼링연맹 전국실업볼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광양시청 볼링팀. 왼쪽부터 이훈수 광양시청 감독, 신승현, 백중윤, 이두현, 최복음, 성백범. /광양시청 볼링팀 제공

며 ‘제2의 최복음 전성시대’를 알렸다. 지난 1일 개인전에서 최복음이 금메달을 목에 걸며 손조로는 출발을 알린 광양시청은 다음날 2인조전에서 최복음-가수형 조가 호흡을 맞추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3인조전에서는 예선 1위로 토너먼트에 올랐지만 아쉽게 전안시청에 발목을

잡으며 은메달에 그쳤지만 5인조전에서 ‘말형’ 최복음을 필두로 백중윤, 이두현, 가수형, 신승현, 성백범이 함께 나서 성남시청과 부산시청을 차례로 완파하며 3번째 금메달과 최복음의 개인종합 금메달까지 추가해 4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양시청은 기대를 모았던 마스터즈

에서는 아쉽게 8강에서 탈락했다. 이번 대회 6개 세부종목(개인전, 2인조전, 3인조전, 5인조전, 개인종합, 마스터즈)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쓸어 담은 광양시청 볼링팀은 다가오는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지난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신화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박희중 기자

‘야구로 즐기다’

‘러브투게더’ 야구동아리 야구단 연합캠프 성료

프로 야구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10주년을 맞아 직접 지원하고 있는 취약계층 야구 동아리와 유소년 야구단의 연합캠프를 개최했다.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에서 취약계층 야구 동아리 4개 팀과 기아-YMC A 유소년 야구단의 연합 캠프를 개최했다. ‘야구로 즐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 참가 어린이들은 교류전과 레크리에이션, 레전드 특강, 놀이공원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레전드 특강’ 시간엔 KIA 타이거즈 출신의 장성호 해설위원이 강사로 나서 꿈나무들에게 프로 야구 선수로의 성장 스토리를 들려줬고, 참가 어린이들은 “장성호 위원처럼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야구 동아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팀을 지원 중이다. 올해 타이거즈 러브투게더의 지원을 받는 야구동아리는 ‘이스트 타이거즈’(광주 동구 장애인복지관)와 ‘드림 리틀 타이거즈’(서울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르뎀 타이거즈’(화성시 동안 아르뎀복지관), ‘나래울 타이거즈’(화성시 나래울사회복지관)이다. 또한 취약계층 야구 유망주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15년 기아-YMCA 유소년 야구단을 창단해 체계적인 훈련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국내 최초 모기업-프로구단 연계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경기 기록에 따라 KIA 선수와 구단 임직원, 기아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해 시즌 종료 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희중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선수 선발대회

2020년도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지난 4일 열린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여대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세한대 선수들. /전남도체육회 제공

세한대, 창단 첫 단체전 ‘金총성’

문체부장관기 학생사격, 공기소총 단체전 대회新 명중

세한대 사격부가 2010년 팀 창단 이후 9년 만에 단체전 첫 금메달 총성을 울렸다. 이소현·안주연·고다혜·원다영으로 팀을 이룬 세한대 사격팀은 지난 4일 전북 임실사격장에서 개최된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여대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동태신기록 작성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세한대(코지 정재운)는 이날 종전 대회신기록(1천852.8점)을 7.8점 경신한 1천860.6점의 기록으로 2위 충북 보건과학대(1천858.5점)와 3위 한국체대(1

천858.3점)를 각각 따돌렸다. 단체전 우승의 선봉에 섰던 고다혜는 공기소총 개인전에서도 246.4점을 마크하며, 이아영(한국체대 247.2점)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했다. 장성 삼계중 출신인 조영재(한체대)는 남대부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245.7점을 쏘 주니어신기록 작성(종전 244.5점)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는 10월 전국체전 전남대표로 출전하는 조영재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금메달 획득의 기대감을 높였다. /박희중 기자

미켈슨, PGA 더 CJ컵 출전 10월 내한

세계랭킹 1위 캡가도 출전

필 미켈슨(49·사진)이 4년 만에 다시 한국 팬들과 만난다. PGA 투어 통산 44승에 빛나는 미켈슨이 10월17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PGA 투어 더 CJ컵에 출전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6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켈슨은 국가대항전을 제외하면 외국 대회 출전을 선호하지 않기로 유명하다”며 “그런 미켈슨이 한국에서 열리는 PGA 투어 대회에 나오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켈슨이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프레지던츠컵 이후 4년 만이다. 미국과 세계 연합 팀의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에서 미켈슨은 당시 3승 1무를 기록, 미국 대표팀 가운데 짝 존슨과 함께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메이저 대회에서만 다섯 차례 우승한 미켈슨은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지난해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맥시코 챔피언십, 올해 2월 AT&T 페넌비치 프로 암에서 우승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인다. 이로써 올해 더 CJ컵에는 지난해 우승자이자 현재 세계 랭킹 1위 브룩스 켄카(미국)와 미켈슨이 출전을 확정했다. 올해 3회째인 더 CJ컵은 10월17일부터 나흘간 제주 클럽나인브릿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